

결혼의 비밀

성경말씀: 엡5:31-32

배경

결혼: 내가 설교하거나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주제

우리 교회와 시청자들: 결혼한 사람들(행복, 불행), 안 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혼자 사는 사람들, 학생들

내가 결혼할 때 최소한 이런 설교를 듣고 마음 깊이 생각했더라면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

이 설교 시리즈는 우리 교회의 어느 특정한 사람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성경의 또 다른 관점에서 내가 보충한 것, 나와 아내의 경험 등을 토대로 가능한 한 성경 중심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기관이 나온다: 가정, 교회, 국가(학교, 회사 No)
창세기 창조 기사의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킨다(창2:22-25).
아담은 이브를 보고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라고 감격하여 외쳤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결혼이다.

사실 성경은 결혼(아담과 이브)으로 시작해서 결혼(그리스도와 교회)으로 끝나는 책이다.

구약: 남편과 아내, 신약: 신랑과 신부

결혼은 사람의 제도이지만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결혼 개념과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그분의 명령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축복을 받는 제도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므로 그분이 원하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자동차를 사면 설명서를 읽어야 한다. 가솔린 대신 간장을 넣으면 차가 망가진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하기에 구원은 못 받았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성경을 구닥다리로 여기지만 성경이 주는 교훈은 실제적이고 가장 큰 도움이 된다(인생 설명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 결혼 후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된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 매우 비관적, 결혼 포기

여러 상담 책이 있지만 성경처럼 많은 사람들의 시험을 받은 책은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엡5장과 창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결혼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1. 결혼의 비밀: 복음과 결혼의 상호 관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키는 것
2. 결혼을 위한 능력: 성령님의 사역의 중요성, 자기중심적 이기심을 깨야 한다.
3. 결혼의 정의(본질): 사랑이란 무엇인가? 감정인가? 능동적인 행위인가?
4. 결혼의 최우선순위: 결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부모, 자식, 직장 등)
5. 결혼의 목적(사명): 두 영적 친구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
6. 결혼의 기술: 낮은 사람 사랑하기

7. 결혼의 구조: 남녀의 서로 다른 구조와 역할
8. 결혼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만찬의 신비
9. 독신의 은사: 독신으로 사는 것도 가능한가?

결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생토록 지속되는 관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1.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2. 이로써 각자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
3. 아이들의 출생과 양육을 위한 안정된 보금자리를 창조하는 것(경건한 씨의 생산, 생육과 번성)

동성에 불가, 일부다처제 불가

결혼은 큰 신비다(32절)

결혼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결코 감상적인 것은 아니다.

결혼은 영광스럽지만 힘들다. 타오르는 기쁨과 힘이 있지만 동시에 피와 땀과 눈물과 패배와 힘든 승리가 있다.

결혼한 뒤 얼마 지나면 결혼이 요정 이야기처럼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2절 말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좌절된 상태로 “그래 정말로 결혼은 큰 신비야”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아프지만 보상이 있고 또 놀라운 일이다.

결혼 통계

미국 통계를 보면 이혼율은 1960년에 비해 2배 증가

1970년에는 89%의 아이들이 결혼한 부모에게서, 지금은 60%만

1960년대에는 미국 성인의 72%가 결혼, 2008년에는 50%만 결혼

2011년 7월 한국 통계; 이혼한 가구주 100만 명, 국민의 7% 이상이 이혼함

서울의 경우: 1980년대 1인 가구, 4.5%, 2011년 24%로 증가, 강남 뉴욕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다.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젊은이들).

젊은이들은 행복한 결혼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믿고 곧 지루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혼자서 외롭게 사느냐? 결혼해서 지루하게 사느냐”만을 옵션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관계만 갖고 아기만을 출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싱글 맘).

이런 현상은 지난 30년에 걸쳐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이제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결혼 전에 같이 살고 있다. 한국도 미국의 이런 나쁜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대학촌 동거 유행

여기에는 사회에 퍼진 부정적인 이유들이 있다.

1. 결혼은 불행하다. 2. 50%가 이혼하고 나머지 50%도 불행하다. 3. 그래서 결혼 전에 서로가 잘 맞는지 알기 위해 같이 살 필요가 있다. 4. 급히 결혼한 사람들은 대개 이혼으로 끝을 맺는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 설득력이 없고 자기들의 동거를 합리화하기 만든 것이다.

결혼의 좋은 점

실제 결과: 결혼 전에 같이 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 뒤에 이혼하기 쉽다.

이러한 동거는 많은 경우 그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아픔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방이 병보다 무서운 경우가 되고 만다. ★★★

이혼율 50%: 대부분 18세 이전에 학교 안 다니고 결혼한 경우

평안한 가정에서 잘 교육을 받고 25세 이후에 정상적으로 결혼한 경우는 이혼율이 매우 낮다.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혼의 70%가 불행하다. 결혼은 지루하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로 보면 결혼한 사람들의 60% 정도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결혼 개념의 변천

전통적인 결혼 개념: 서로가 일생동안 약속을 맺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

현 시대의 결혼 개념: 서로를 성적으로 만족시켜 주기 위한 계약

기독교의 결혼관: 결혼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일생동안 헌신하고 사랑하기 위한 것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 결혼을 위해 자신의 충동과 흥미를 참고 공통의 유익을 찾는 것
결혼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
그래서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일체가 되어 서로의 인격을 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번영할 수 있는 사회의 안전장치, 다른 환경에서는 이것이 불가능

현 시대의 결혼관: 18-19세기의 계몽주의의 영향

이전 시대에서는 모두 자기가 맡은 임무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음
그러나 계몽주의에서는 삶의 의미란 남녀가 자유롭게 자기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자기 부인을 통해 결혼과 가족을 지키려는 것은 사라지고 자기의 성적 욕구와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변화가 됨.

즉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이해한다.

그래서 공적인 유익,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등을 무시한 채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려는 풍습
그래서 이제 좋은 결혼은 '나만을 위한' 결혼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나만을 생각하는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완벽한 파트너 찾기

영화, 소설 등을 통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맞는 '완벽한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삶에 대한 생각, 이야기, 책, 경험 등에서 공통분모가 맞아 마치 친척처럼 생각이 되고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는 성공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남자 같으면 여자의 얼굴과 몸매만을 보고 결혼하려 한다.

얼굴만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남자도 키가 크고 배도 나오지 않고 멋있고 돈 있으면 좋다. 성적 매력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혼하고 "더 완벽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다시 나선다.

또한 최근 들어 빌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유명 정치인들의 비도덕적인 결혼 생활이 남성들에게 이런 것을 부추기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의 욕망을 다 채워주는 사람이 가장 완벽한 배우자라는 생각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인격을 다듬고 좋은 가정을 만드는 장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인생 목표를 성취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함.

이러한 이상주의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결혼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이혼이 늘게 됨.

결혼의 진실: 당신은 결코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

서로 결점이 많은 두 사람이 안정과 사랑과 위로의 공간을 만드는 장

이상주의 완벽 파트너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팀 켈러의 말

결혼을 하려 하고 유지하려 하며 어떻게든 이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의 상담
"목사님, 사랑이 이처럼 어려운가요, 사랑은 자연스레 와야 하는 게 아닌가요?
프로 야구 선수, "빠른 볼을 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레 됩니다."

소설 작가, “좋은 소설을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레 써져요.”

“목사님, 그것은 야구나 소설이지요. 지금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잘 맞고 영혼의 파트너라면 사랑이 자연스레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1. 그런데 문제는 어떤 두 사람도 모든 면에서 자연스레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벽한 동반자는 이 세상에 없다.

결혼은 상대방에게로 매우 가까이 가게 만든다. 그래서 서로 닮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놀라운 방법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 끝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10, 20, 30년 후에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때 가 봐야 한다.

나와 아내의 경우: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모습이 되어 행복하다.

2. 결혼하는 모든 부부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

이기심, 자기중심적 사고,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그래서 프로 운동선수의 멋진 경기나 소설가의 좋은 소설보다 행복한 결혼은 성취하기가 어렵다.

운동선수, 소설가는 본능적으로 잘 하지 못한다. 많은 연습과 노력

그런데 영이 비뚤어진 두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운동선수나 소설가 중에서도 결혼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

결혼은 큰 신비이다(32절)

신비: 하나님만이 드러내어 보여 주시는 사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총 22번, 이스라엘의 신비, 교회의 신비, 왕국의 신비, 결혼의 신비

31절은 창세기 2:24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32절에서 이것은 메가톤급 미스터리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결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결혼의 신비는 무엇인가?

바울은 곧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한다. 즉 엡5:25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1)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영광의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자신과 연합할 수 있게 하셨다(롬6:4-5).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벧후1:4).

자기의 영광과 권능을 버리고 종이 되셨다(빌2:7).

자기의 이득을 버리고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추구하셨다.

그 결과 그분과 우리는 깊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결혼을 이해하는 핵심이요, 결혼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이브의 결혼을 예수님과 교회에 연결시키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결혼하게 하실 때 이미 그분의 계획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2) 이타적인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창1:26).

동등한 세 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양보하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자신을 양보한다.

바로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째 결혼을 확립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염두에 두셨다면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에 근접하게 될 때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것은 결혼 당사자들에게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어야만 함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결혼에 적용할 때 행복한 가정생활이 온다는 것이 결혼의 가장 큰 비밀이다.

복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 많고 사악하며 결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소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을 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결점을 부인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정보를 주지만 귀에 그슬리고 가혹하다. 그래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보여 주며 동시에 무조건적인 약속을 준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보고 회개하게 만들어 준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게 된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다.
좋은 결혼 생활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미리 보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도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채워서 이기게 한다.
배우자의 허물과 결점을 보고 이야기해주면서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배우자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며 한 마디로 복음의 바른 이해이다.